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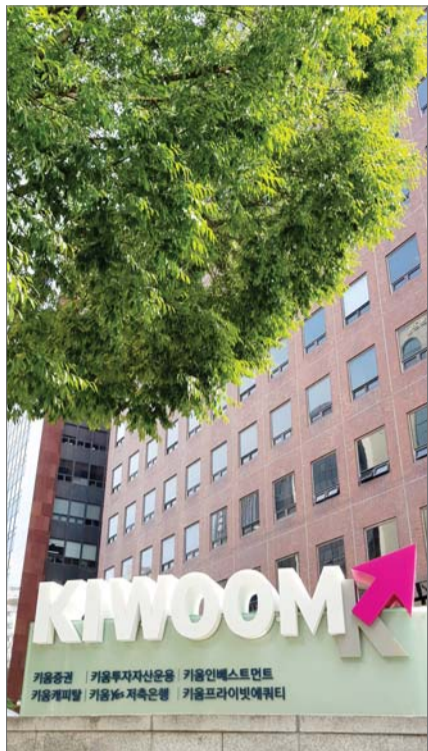
동학개미가 키운 키움證, 신규 333만좌에 ‘꿈의 영업익 1조’

주식중개 점유율 30% 돌파 ‘1위’
신규계좌 333만개 전년비 389% ↑
기업금융 운영업수익도 34% 늘어

올해도 일 약정금액 기록 연일 경신
해외주식 1월 약정 14.1조 최고기록

키움증권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본효율성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도 27.4%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창출 능력을 재차 증명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주식중개 점유율 30%를 넘어서며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1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1.6% 증가한 9549억원, 당기순이익은 91.3% 증가한 69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던 키움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 3555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를 달성하며 창사 이래 연간 최대실적에 대한 기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키움증권

대감을 높여 왔다.

◆작년 키움 신규계좌만 333만개
역대 최대실적을 이끈 일등 공신은

리테일 부문이다. 지난해 신규 계좌는 총 333만개 개설되며 전년 68만개와 대비 389.6%, 주식 전체 브로커리지(주식중개) 운영업수익은 3793억원으로 전년 971억원 대비 290.6%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리테일부문 전체 운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15.8% 증가한 7206억원을 달성했다.

신규계좌개설을 통해 고객 기반이 크게 확대됐고, 신규계좌 중 30대 이하 연령 비중이 56.7%를 차지하며 장기적인 고객 기반이 개선되고 투자연령층의 다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악화된 영업환경 속에서도 회사채 인수주선 및 부동산 금융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운영업수익 17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인수와 성공적인 자산매각을 통해 IB 부문 내에서도 수익기반 다변화를 이뤘으며, 정통IB인 채권발행시장(DCM) 부문에서는 국내채권 대표

주관과 인수실적 업계 8위를 기록하며 2018년 리그테이블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이후 꾸준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의 성장세는 2021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국내주식 일약정, 해외주식 월 약정, 신규계좌개설 등 리테일부문 역대 최고 기록을 연달아 경신했다.

특히 연초 키움증권은 국내주식 일약정금액 기록을 연일 경신했고, 지난 1월 11일 28조8000억원 돌파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에서도 시장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연일 최고치를 돌파하며 전년도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일평균 약 4만개 가까이 개설되던 신규계좌는 지난 달 8일 5만3269개를 넘어서더니 11일 6만4915개로 일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월 한달간 개설된 신규계좌는 89만 3000개로, 이는 2020년 1분기 73만3000개, 2분기 70만개를 크게 상회하는 기록

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설된 신규계좌 약 333만개의 2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외주식 1월 약정만 14조 돌파

해외주식부문에서는 지난 1월 약정 14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최고 약정 기록 9억1000만원에서 54.2% 증가한 수치다.

또 1월 기준 해외주식 거래 계좌 수는 38만개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07.2% 증가했고, 일평균 위탁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리테일부문의 비약적 성장과 사업 전 부문의 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며 “키움증권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고, 중장기적으로 위탁중개서비스 중심의 사업모델을 넘어 자산관리가 결합된 금융투자 플랫폼 회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KB자산운용, 업계 첫 글로벌 수소경제펀드 선배

국내 수소지원법·HPS 등 도입
관련 인프라·산업 급성장 예상



KB자산운용이 업계 최초로 글로벌 수소경제 펀드를 출시한다.

‘KB글로벌수소경제펀드’는 수소를 생산하는 독일 지멘스와 노르웨이 하이드로겐, 고압저장 및 운송에 관련된 독일 린데와 프랑스 에어리퀴드, 수소차 배터리 및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미국 플러그 파워와 두산퓨얼셀, 완성차 제조 모빌리티인 현대차 등 수소와 높은 사업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에 주목하면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수소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수소지원법과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등을 도입했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란 2022년부터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한국전력의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수소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한다. 지난 5일에는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 수소 관련 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재진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상무는 15일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관련 인프라 및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는 글로벌 수소경제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KB자산운용은 지난 10월 국내 수소경제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KBST ARFn수소경제테마ETF’를 출시한 바 있다. 설정 3개월만에 순자산 1850억원을 넘어섰고, 연초 이후 수익률이 20.57%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교보증권, 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하는 A형(연보수 1.625%)과 0.5%를 선취하는 A-E형(연보수 1.275%, 온라인선취), 선취수수료가 없는 C형(연보수 2.225%)과 C-E(연보수 1.425%, 온라인전용)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는 없다.

/박미경 기자

5200만원 신고가 비트코인 직접 수혜 보궐선거 ‘지역화폐 확대’ 정책 기대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운용사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으로 확대돼
1분기부터 전자결제사업 성장 전망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워지며 핀테크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직접적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주목됐다. 최근 5200만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기록 중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4월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적 호재도 기대된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모든 사업 부문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결제 사업 부문이 올 1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등 실적개선 모멘텀이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운용사다. 자체 코인인 ‘썬샬(XTL)’을 지난해 12월 고팍스(GOPAX) 거래소에 상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로 전자결제 사업, O2O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전자결제 72%, O2O 23%, 기타 5%로 추정된다. 최 연구원은 “고객사 가운데 레저, 여행, 문화 관련 기업이 많아 지난해 전자결제 사업 부문이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부실 고객사 정리를 마쳤다”며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거래액 급증으로 올해 전자결제 사업 부문이 다시 성장세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결제 사업은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그 수혜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로페이와 복합결제를 할 수 있는 머니트리에도 주목해야 한다.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플랫폼 ‘머니트리’의 결제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머니트리는 제로페이와 복합결제를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 최근 이용자가 몰리며 260만명을 넘어섰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 중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결제 벤더사이기도 하다.

최 연구원은 “머니트리는 2017년 출시 이후 아직까지 매출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까지 취급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지원금 확대가 제로페이 결제금액 증가로 이어져 머니트리의 실적 개선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서치알음은 올해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91억원, 1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2.0%, 33.3% 늘어난 수치다.

그러면서 적정주가로 6500원을 제시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 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 4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49.1%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부터 실적 성장기 진입이 확실시된다”며 “썬샬의 고팍스 상장과 머니트리의 수혜 등 추가 상승 모멘텀이 많다”고 했다.

/송태화기자 avin@

삼성자산운용, ESG펀드 2종 설정액 올 1015억 증가

클린에너지·에너지트랜지션펀드



삼성자산운용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펀드인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펀드와 삼성에너지트랜지션펀드의 설정액이 올해 들어 1015억원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ESG 투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투자규모는 지난해 기준 40조 5000억달러로 2012년 13조2000억달러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신(新)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기업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관심

깨우고 클린에너지 기반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주된 투자 콘셉트다. 2007년에 설정된 이 펀드는 지난 10월 기준 최근 3개월, 1년 수익률이 각각 21.2%, 47.6%를 기록하며 올해에만 721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지난 1월 출시한 삼성에너지트랜지션펀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출시 이후 294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이 펀드는 BNP파리바자산운용의 ‘에너지트랜지션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 펀드다.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기술·효율화, 에너지 인프라 관련 약 80개의 기업에 분산투자한다. 지난 1월 28일 설정 후 5.1%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송태화 기자

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펀드는 스위스 픽테사(社)의 ‘픽테 클린에너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